



20th ANNIVERSARY

CONTENTS

03 인사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4 막을 이야기

사무처, 청소년연구소 주요소식을 전합니다.

06 나눔을 실천하다

2016 MBC 1318 사랑의 열매캠프

07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봉사단 – 필리핀

08 청소년과의 동행 20년

재단 설립20주년 기념 행사

11 후원금 사용현황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12 후원 안내

후원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14 후원자 현황

감사합니다.

COVER STORY

1. 서포터즈 워크샵 단체 사진
2. 사랑의열매 캠프 청소년 봉사단원
3. 20주년 기념 행사 전경
4. 꿈과 사람속으로 해외봉사단 활동



이사장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

“아동, 청소년은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물론 반론도 많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 깊이 위하고,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녀들과 아동·청소년들에 대하여서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회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인색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회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싫어해도 학원을 보내고, 과를 부리는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다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이들은 잘 알아들을까요? 부모의 그 속깊은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볼까요?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걸 다 알아듣는다면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자신의 기준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놀아주지 않고, 혼내고, 학원가라, 이런저런 잔소리만 하는 부모의 사랑을 알아듣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작각이 아닐까요? 그래서 표현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든보스코성인께서 경학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주위의 청소년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똑똑한 부모, 지혜로운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설립 20주년을 지냈습니다. 지난 20년은 그렇게 청소년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려는 노력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사회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고 소외를 체험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사람의 위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여물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주년을 지내면서 잔차를 벌이기보다는 그런 부족함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잘 청소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한 소통과 다짐의 시간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다시 경립하고, 청소년들을 만나는 우리들의 약속 등의 행동규범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청소년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돋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후원자님들께서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맑음 이야기



1 열린 교육 : 애니어그램 & MBTI

7월 7일(목), 7월 14일(목) 2회 애니어그램에 대한, 9월 28일(화), 10월 4일(화) 2회 MBTI에 대한 열린 교육이 '청소년연구소 맑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기관의 선생님들과 재단 직원들의 참여로 자신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서로의 다른점을 이해하고 존중 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2 인천광역시 참여예산학교

7월 27일(수)부터 28일(목)까지 천주교인천교구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인천광역시 참여예산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내 청소년운영위원회들이 주체가 되어 공통체 게임, 예산·정책의 개념 강의, 모둠별 토론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2016 지역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는 8월 21일(일) 부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인천교구 전례밴드 축제, 9월 3일(토) 인천 평생학습관 광장에서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대축제, 9월 10일(토) 연수구 솔안공원에서 연수구 꿈틀 장터 등 3번에 걸쳐 지역청소년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재단 홍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생각해보고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팔레비즈로 와편을 만들며 자신의 꿈의 실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천주교인천교구청소년센터 축복식

재단 사무처가 천주교인천교구청소년센터 4층((구)박문여중)으로 이전하였습니다. 9월 11일(일) 청소년센터의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센터 마련을 기념하는 다양한 부스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재단은 재단 캐릭터 소개를 위한 블렛 이벤트, '꿈과 사랑 속으로' 청소년 해외봉사단의 활동 사진전과 사진엽서판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5 2016 제 2회 대학생공모전 개최

대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모아 재단사업의 다양성을 모색하고자 재년에 이어 두번째 대학생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주제였습니다. 총 21팀이 응모하였으며, 서류와 면접, 발표 심사를 거쳐 세 팀을 선발했습니다. 입선에는 '벗바리' – '미래를 뿐하자' (강나영, 김지희, 김태건, 서민지, 박민혁, 정승연, 정효민), 우수상에는 '청춘동행' – '토마로피아' (김영은, 김민지, 이광용, 이준석, 잠진영), 대상은 '도담' – '나 사용법' (강보정, 이다영, 유채린, 이신혜)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된 프로그램은 각 기관을 통해 시행되어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20주년 기념 행사 나눔장터 운영

10월 27일(목) 재단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전 자활작업장 'Cafe 立'의 더치커피와 20주년을 맞아 만든 재단 캐릭터 '맑음이'를 소개하는 기념품을 판매했습니다. 수익금은 자립지원관 청소년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7 2016 청소년운영위원회 '홈커밍데이'

11월 19일(토) 우리 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서포터즈 35명이 참석한 홈커밍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도 활동보고와 청소년운영위원회 10주년에 대한 계획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빙고 및 행운권 추첨 등 친절 기획한 이벤트를 통해 재단 청소년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청소년참여활동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다

2016 MBC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MBC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열매 캠프'가 2016년 7월 27일(수)부터 29(금)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2000명의 청소년들은 캠프 만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통해서 성장하고, 참가자들 간에 의미 있는 우정을 나눔으로써 소통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이 인천지역 캠프를 주관하였습니다. 인천지역 캠프는 송도 면세대학교 캠퍼스와 박문 여자고등학교를 베ース으로하고 인천지역의 여러 활동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300여 명의 청소년과 40여 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의 기쁨, 소통을 통한 나눔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25개의 모둠이 봉사자와 멘토를 중심으로 청소년봉사, 노력봉사, 말벗봉사, 식사수발봉사, 육육봉사, 빨래봉사, 농촌봉사, 환경봉사, 특기봉사, 특화활동 등 2박3일간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기찬 소감 우기 공모전

01 소감 수기 공모전 우수상 - 이민주

이번 자원봉사를 하며 외할머니가 유독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자주 찾아뵙지도 못할뿐더러 만났을 때에도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과거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외할머니에게도 제대로 손녀딸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죄송했고 앞으로는 이런 후회가 없도록 할머니의 말씀무도 해드리고 아마도 해드리며 할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친해지기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할머니가 혼자 사실 떼 얼마나 외로우실지, 가족들이 찾아가면 얼마나 반가울지, 손녀딸이 자급 보다 살갑게 대하며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한다면 얼마나 행복할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자체 말고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사람과 존경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행동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다짐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최고의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다시 한 번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꿈과 사람속으로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봉사단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함께 하며 우리 재단이 주관한 '꿈과 사람속으로' 해외 자원봉사단(청소년 18명과 지도자, 의료진 등 총 25명으로 구성)이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2016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 까지 9박 10일의 의미 있는 여정을 지냈습니다.

'꿈과 사람속으로'는 청소년 국제 활동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현장을 해외로 확대하고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4년 연속 봉사를 등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재단은 '꿈꾸는 별,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3회째는 뮤지컬에서 진행했었지만, 올해는 그 활동영역을 필리핀으로 옮겨 실시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세계의 청소년들과 함께 꿈을 나눌 예정입니다.

꿈꾸는 별, 세계 속으로

봉사단은 재단과 MOU를 체결한 바기오시와 DSWD의 협조로 현지 공립 학교, 청소년 센터, 아동센터 등에서 노력봉사, 문화 나눔, 교육봉사 등을 통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노력봉사 - 바기오 아동센터 출결 개선을 위한
체인트 작업 및 충수방지를 위한 묘목 심기



문화축제 - 강기자랑 및 체험부스 개최



학용품 나눔 행사 - 현지 공립초등학교 전교생
약 570명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



교육봉사 - 바기오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의 현지 마동과,
남자청소년 센터 청소년들을 위한 부작, 파우치 만들기, 음식 나눔을 진행



청소년과의 동행 20년



1996년 시작된 우리 재단은 2016년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10월 27일(목)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다 마주하다 상상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 행사는 청소년과 함께한 재단의 20년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위한 다짐과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1부 기념식

1부 기념식은 청소년 댄스 팀 'NL크루'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멋진 비보잉 댄스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축하해 주신 고마운 분들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섬터 청소년이 재단을 통해 성장한 모습과 직접 준비한 축하의 인사를 들을 수 있어 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으며 다시금 정비한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가톨릭정신으로 아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 (미선)

"청소년이 꿈을 찾고, 권리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데 함께 한다." (비전)

이어 대학생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인 '대학생 공모전 맘음'은 총 21팀이 응모했고 세 팀이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기쁜 날을 맞은 직원들의 멋진 공연이 있었습니다. 각 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과의 동행'을 주제로 감동 가득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청소년과의 동행을 물소 보여주신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무리 재단은 2016년 20년을 맞이하기까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늘 새롭게, 언제나 믿음직한 청소년들의 풍랑자가 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권리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데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 심포지엄

2부 심포지엄은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의 교육연구기관인 '청소년연구소 맘음' 주최로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5년부터 2년여에 걸친 연구 결과에 따른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단 산하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유관기관(단체) 실무자 200여명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연구들은 그동안의 자립지원사업의 성과와 의미, 문제점을 되풀이함으로써 앞으로의 나아갈 바와 과제를 새롭게 준비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자립의 과제와 당면해있는 각 지원기관의 청소년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떻게 자립을 생각하고 경험하며, 지원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고,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단 내 모든 자립지원사업과 그 연계망의 현황,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짜조명해 보았습니다.

청소년연구소 맘을 김수진 소장, 제도와사랑 사회복지연구소 김정현 박사와 하지선 박사가 청소년 자립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안 등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론으로 정경은 교수(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미 수녀(카피동물원 대표), 박현동 목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박윤준(재단 청소년자립지원기관 겸원 청소년), 홀충구 시의원(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재단 내 자립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현재 자립의 과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박윤준군이 토론에 참여하여 자립준비를 해오면서 경험한 내용과 현재 자립을 헤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주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재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들과 제언들을 제기함으로써, 재단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지역사회, 지자체와 국가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한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심포지엄 자료집 링크를 확인하시는 분은 032)796-794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의 동행 20년

3부 감사미사

3부 감사미사는 20년 동안 함께 걸어온 모든 직원들과 후원자들, 재단과 교구의 신부님들이 참석하고 이사장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미사 중 봉헌 시간에 모든 직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청소년을 만나는 우리들의 약속'을 서약하고 마음에 새기며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중심으로', '언제나 믿음직한', '늘 새롭게' 세 가지의 재단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10가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청소년에게 맡은 노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장 정신철 주교님께서는 "재단 설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써온 관계자 분들과 재단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재단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꿈을 찾고, 권리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데 함께 할 것" 이라며 축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 미사 중 그 동안 함께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청소년연구소 알음 윤지민, 연수구청소년수련관 한문순, 비다의별청소년수련원 오경수)의 공로상 수상과 20년을 걸어올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 회원(이현숙 세실리아, 흥성덕 미카엘) 분들께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이사님이 흥현용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 온경축일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재단을 설립하셨던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직원과 손님들이 만찬을 함께하며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맑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을 만나는 우리들의 약속

청소년 중심으로

-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듣겠습니다.
- "안된다" 를 말하기보다 "함께 생각해보자" 를 실천하겠습니다.
- 청소년을 만나는 순간마다 눈을 맞추고 경증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욕구와 결정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직한

- 청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스스로와 서로에게 절ict하겠습니다.
- 토거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늘 새롭게

- 청소년과 만났던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 청소년을 위해 끊임없이 "why?" 를 질문하고 "how" 를 고민하겠습니다.
- 청소년전문가로서의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금 사용현황



내눔을 실천하신 소중한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제0기틀리며청소년재단 20주년을 맞아 편성한 캐릭터 물음이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준 / 단위: 원)

월	수입	지출	계
1~6월	258,382,880	청소년 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262,550,732원/ 운영비 5,280,488원	268,831,220
7월	44,681,055	청소년 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60,397,481원/ 운영비 1,026,776원	61,424,257
8월	43,334,125	청소년 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13,079,786원/ 운영비 874,822원	13,954,608
9월	46,179,980	청소년 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27,491,183원/ 운영비 874,668원	28,365,851
10월	45,145,420	청소년 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53,747,505원/ 운영비 930,208원	54,677,713
11월	43,556,195	청소년 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44,491,633원/ 운영비 1,056,854원	45,548,487
계	481,279,655		472,802,136

※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계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미동·청소년 복지 및 육성사업, 구호 및 장학사업, 해외자선사업 등에 사용하여, 성실히 두명하게 집행·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이법인 결산서류·공시시스템 공시(epointo.hometax.go.kr), 공인회계사·세무사·세무회계인, 주부간정 감사·지도점검 등〉

20
th

20년이나누 간 시간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 분들의 진심 어린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청소년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크고 따뜻한 관심·진실으로 감사 드립니다.

후원 회원 안내·후원방법

2016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후원회원 안내

01 청소년을 위해 신청해주신 후원금이 잘 출금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후원회원님의 CMS후원의 경우 자동이체일자에 간액이 부족하면 재출금 시도(2회)가 되며, 6개월 이상 재출금이 실패되면 종결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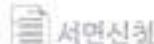
02 개인정보 변경 시 꼭 연락주세요.

후원회원님께 저희 재단의 소식지(연2회)와 부활대축일과 성탄대축일에 주교님의 메세지가 담긴 축하카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결제정보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후원회원 방법

① 경기 후원(CMS자동이체)

후원회원님의 은행계좌에서 후원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후원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재단 사무처에 제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www.yism.or.kr)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후원참여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 사무처(032-766-7942)로 전화 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일시 후원

후원회원님이 직접 계단의 후원금계좌로 이체하시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후원신청 ▶ 재단 후원금 계좌로 이체 ▶ 입금 후 확인전화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입금내역 확인 후 발급해드립니다.)

재단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4-226501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농 협 147-01-214064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국민은행 661001-01-232719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우리은행 1005-001-494596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③ 현물 후원

식료품, 전자제품, 가구, 학용품, 의류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물품의 시가로 발행해드립니다.)

발급 방법

재단에서는 후원회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 2016년 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회원님

발급기준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부내역

발급시기 : 2017년 1월 10일 전후

발급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확인 및 발급

-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기존의 기부금영수증 일괄 우편 발송이 어렵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서는 재단 사무처로 연락해주세요.

문의 전화 032)766-7942 / 문의 시간 월 ~ 금 (10:00 ~ 18:00)

기부금 영수증 Q&A

Q1.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죄송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명의를 변경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신청 시 등록한 후원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2016년 총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단에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A2. 재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받은 자정기부금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3,000만원 초과분은 25%)
- 법인(기업)후원회원의 경우 소득의 10% 손비산정

Q3. 연말정산을 위해 기관 서류가 필요한데, 받을 수 있나요?

A3.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전화주시면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